붓끝에 깃든 한글의 혼, 세계를 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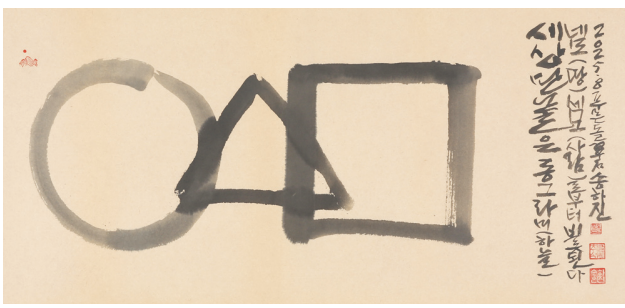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세종 정부세종청사서

"이제 한국 서예의 주인은 한글이어야 합니다". 이는 서예가 푸른돌·취석(翠石) 송하진 서예가가 평생 걸어온 예술 철학의 결정체이자, 한국 서예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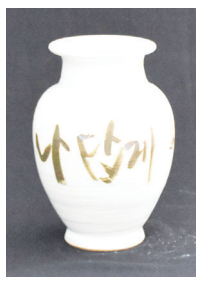
한글날을 맞아 정부 지정 '한글 문화도시 세종시'에서 개최되는 이번 특별전시는 송하진 서예가의 붓끝이 빚어낸 한글 조형서예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며, 한국인의 정신과 미의식이 깃든 K-서예의 정체성을 전 세계에 제시한다.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박연 문화관 1층에서 열리는 개인전 '한글의 멋을 담은 K-서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며,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가 후원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글의 조형미를 깊이 탐구하고, 한국 서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글 문화도시 상징성 품고
조형서예 작품 60여점 선봬
세계화·유산 등재 향해 비상
우리 서예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명확히 제시한다는 점서 의미



▲송하진 서예가의 시대정신을 담은 '거침없는 서예' … K-서예의 네 가지 제안

송하진 서예가는 고려대학교 법학 박사이자 제34-35대 전북도지사를 역임한 행정가이자 전북을 대표하는 큰 정치가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예에 심취해 한글의 세계화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근현대 한국 서예의 거장인 부친 강암 송성용과 대유학자이자 서예가인 조부 유재 송기면의 가풍 속에서 자연스레 서예를 익혔으며, 그의 아호 '취석(翠石)'의 한글 뜻인 '푸른돌'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쓸 만큼 한글 사랑이 깊다.

그는 60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서예의 대중성, 한국성, 그리고 세계성을 깊이 고민한 끝에, 한국 서예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며 한국 서예계를 비롯한 세계 서예계를 주목시킨 바 있다.

1. 거침없이 쓰는 서예: 과거의 법칙, 형식, 틀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서예를 의미한다. 그는 생각이 자유로워야 손끝의 붓이 살아 움직이며, 거침없이 써야만 예술이 된다고 강조한다. 아름다움의 개념을 '곱고 예쁜 글씨'를 넘어 '거칠고 흩날리는 글씨'까지 무제한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한글이 주인이 되는 서예: 송하진 서예가는 서예가 한자 위주로 인식되는 현실을 변화시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실용적이며 아름다운 글씨로 인정받는 우리 한글이 서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는 중국 서예(한자)와 일본 서예(일본어)처럼, 한국은 한글이 주인이 되어야 국적성 있는 서예의 다양성을 이루고 진정한 K-서예의 세계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철학 때문이다.

3. 오른쪽으로 쓰는 서예: 문장의 어순(왼쪽에서 오른쪽)과 달리 필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는 인습적 관행을 벗어나, 오늘날 한글의 어순과 필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젊은 층의 호응도를 높일 수 있는 실용적인 변화라고 주장한다.

4. 한국성을 추구하는 서예: 중국이나 일본 서예와 확연히 구별되는, 한글 궁체처럼 한국적인 느낌과 맛, 분위기가 우러나오는 독창적인 한국 서예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술을 향한 구도자의 여정… 공직을 내려놓고 붓에 미치다

송하진 서예가는 무려 42년이라는 긴 세월을 행정과 정치 마당에서 보냈다. 그러나 공직 생활 중에도 예술을 향한 그의 꿈은 결코 작아지지 않았으며, 공직을 마친 2022년 6월 말 이후에는 젊은 시절 좋아했던 서예와 시문학에 '미친 듯이' 몰입했다.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장준석 평론가는 "한글의 미적 조형성을 탐구하며, 붓의 속도와 먹의 농담으로 현대적 예술미를 구현한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작품 〈돌〉에 대해서는 "글자가 그림이 되고 시가 되는, 시서화(詩書畵)가 한 몸을 이룬 예술"이라며, 시와 회화, 조형의 경계를 넘는 예술성을 극찬했다.

서예가이자 평론가인 심석 김병기 교수는 그의 '거침없이 쓰는 서예'에 대해 "한국 서예가 구현해야 할 시대정신이며,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전통 서예를 알리는 효과적인 묘안"이라고 평가하며, 그의 독창적이고 선구적인 가치에 방점을 두었다.

송하진 서예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조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독창적인 서풍을 선보이며, 더욱 훌륭한 한글 서예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서예에 몰입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 인간의 예술을 향한 구도자적인 모습"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리라 생각된다.

▲세계화와 유산 등재를 향한 발걸음

송 서예가는 이미 1997년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처음 기획하여 한국 서예의 국제화를 이끌었고, 전용 서예관 건립 및 2025년 한글서예의 국가 무형유산 등재를 주도했다.

현재 그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 등재추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K-서예의 세계화를 위해 힘쓰고 있기도 하다.

이번 세종 전시는 '한글로 세계가 공감하는 서예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라는 그의 의지를 반영하며, 한글의 예술성과 정체성을 되묻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되어 전시회를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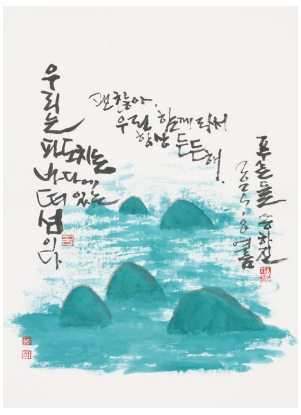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세종시가 세계적 표음문자인 한글 창제일을 기념해 개최하게 되었으며, 송하진 서예가는 세종시의 높은 뜻에 감동하여 그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한글서예 작품 60여 점을 선보이는 귀중한 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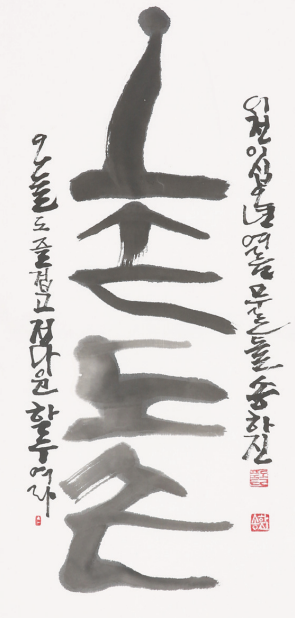
그의 붓끝에서 피어난 한글은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시(詩)이자, 예술이자, 한국인의 정신 그 자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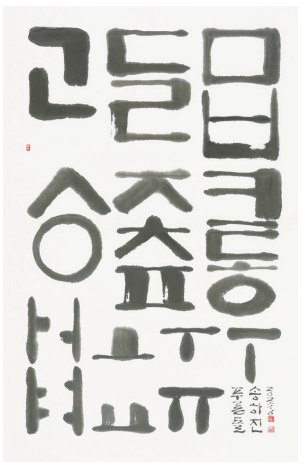
송하진 서예가의 이번 세종시 전시회는 전통의 뿌리 위에서 현대적인 감각과 세계적인 시선을 아우르며, 한글의 미학을 전 세계로 펼쳐낼 전망이라 생각되어 크게 기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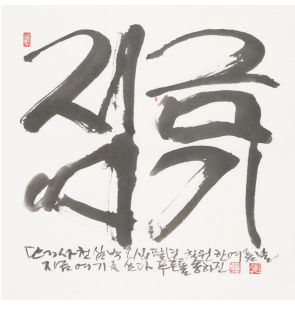
아름다운 우리나라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열리는 송하진 서예가의 뜻깊은 이번 전시회에 국민의 특별한 관심과 관람을 기대해 본다.

/이만호 기자









송하진 서예가는?…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한글의 세계화에 헌신

한학자이자 서예가로 활동하신 부친 강암 송성용과 이도남 여사 사이에 4남 2녀 중 여섯 번째 막내아들로 1952년 태어났다.

송 서예가는 어려서부터 조부 유제 송기면과 부친 강암 송성용의 지도와 자신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젊어서부터 붓을 놓지 않고 4,0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제작하여 세상에 남겼다.

2024년 10월과 11월 '거침없이 쓴다' 서예 전시회를 서울과 전주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얼굴 없는 천사비', '애국지사 장현식 선생 기적비', '한옥마을 풍낙헌', '부안 내변산 월명암', '세계 평화 명상센터 대웅보전' 등 많은 현판, 비문, 제호 등이 있어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지금은 세계서예비엔날레 조직위원장으로 한글 세계화에 헌신하고 있다.